# 용의 여의주와 질그릇의 보배

## (고후4:7~15)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용의 여의주와 질그릇의 보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용의 여의주와 질그릇의 보배.

여의주라는 것은 '여의보주'의 줄인 말입니다, 원래 보물 보(寶)자가 들어가서 여의보주라고 하는 말의 줄인 말인데,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그 영롱한 구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구슬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뜻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발원을 뜻대로 이루어준다는 보배의 구슬을 뜻하는 바가 부처님의 공덕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의주도 사실은 상상 속의 물건이에요.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을 날기 위해 천 년을 기다리는데, 이 천 년의 기다림 속에서의 그 마음상태를 가만 들여다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조금만 잘되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잖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건강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다 천 년을 용이 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이무기의 기다림으로 뭉뚱그려지는 겁니다.
이무기의 기다림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이러한 이무기의 천 년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의주, 이 여의주를 입에 물어야 하늘을 날 수가 있고, 변화무쌍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많은 소원들이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죠, 그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무언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 낸 상상 속의 물건이죠.

비록 상상 속의 물건이지만 은근히 경쟁심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여의주를 손에 든 것처럼, 우리 육체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의주에 대한 얘기는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이야기는 실제를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사건이고, 그리고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의주를 여의보주라고 하는 만큼이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몸이 귀중하지만 그 귀중한 육체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인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신 사건에 비교하면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여의주만큼이나 대단한 보물이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여의주와 비교하는가 하면,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단지 보배를 담고 있는 정적(靜的)인 상태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될 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의주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의주가 단순히 그 보석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 구슬을 갖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십자가가 보물인 것도 그 자체가 귀중하다기보다는 그 십자가사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주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질그릇 속의 보배와 용의 입에 담겨있는 여의주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초장부터 좀 느낌이 아슬아슬합니다.

과연 질그릇의 보배가 여의주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배에서 발휘되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일단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도 일단은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일단 핍박과 거꾸러뜨림이 현실적으로 주어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의주를 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의주를 쥔 사람이 우겨 쌈을 당하겠습니까? 사방으로 포위되기 전에 벌써 동서남북 어딘가는 뚫고 빠져나가지 않았겠어요? 여의주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이니까.
어디 한 구멍으로만 빠져나갔겠어요? 한 바퀴 빙 돌면 동서남북의 포위망으로 좁혀 와도 모든 적들이 완전히 섬멸되었겠지요.
무엇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나서 낙심만 하지 않으면 능사입니까?
답답한 일을 안 당하게 해야지요, 여의주를 쥔 사람은 답답한 일이 생기려고 할 때 아마 싹을 잘라서 모든 소원에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초장에 해결해놓았을 겁니다.
근데, 이 보배는 기껏해야 답답한 일을 당해놓고 낙심하지 않는 게 능력이라니까, 이거 그야말로 답답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아요, 왜 핍박을 당합니까?
여의주를 쥔 사람은 핍박을 당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그 적을 압도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해놓고 버린바 되지 않으면 능삽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해놓고서도 망하지만 않으면 되겠습니까?
왜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는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복음을 전하는 제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꼴꼴난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이런 식으로 발휘가 되니까.
맨날 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 한다' 이게 어법상 맞는 말입니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했으면 싸인 것이지, 싸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건 정신착란증 같아요, 정신착란.
현실은 우겨 쌈을 당하고 있는데, '아, 나는 싸이지 않았어!' 하면 되는 겁니까?
또, 핍박을 당했으면 핍박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버린바 된 겁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러뜨려졌으면 망한 거죠.
거꾸러질 뻔 하다가 거꾸러지기 일보직전에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몰라도, 거꾸러뜨림을 당했는데, 이미 상황을 종료되었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의주의 능력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리고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무지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능력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겨 쌈을 당한다든지 핍박이라든지 답답한 상황이라든지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든지 하는 고통스러운 환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보면, 스펀지를 물이 담긴 그릇에 갖다 대면 물을 확 빨아들이면서 스펀지가 축축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핍박이나 답답함이나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일단 우리 마음이 스펀지처럼 그런 환란들의 영향력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무거워진 마음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 무겁게 축축하게 상황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영향력을 겨우겨우 추스르면서 이겨나가며, 좌절하지 않고 끝내 일어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겨 쌈과 답답한 상황과 핍박의 상황과 거꾸러뜨림의 상황이 분명히 내 육체의 상황에는 주어졌는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스펀지가 아니라 방수처리 된 마음인 것처럼 그 상황이 주는 영향력이 조금도 흡수되지가 않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우겨 쌈에 대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핍박을 육체의 상황으로는 접하고 있는데 핍박이 주는 고통에 대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그 상황의 효과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능력은, 우겨 쌈을 당하는 상황을 미리 퇴치하는 게 아니라, 우겨 쌈은 당했는데 내 마음은 그 효과가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요즘 이 말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꾸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요즘 코

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배우가 연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의 내용을 읽어보고 자기가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아, 이런 느낌이겠다!'고 알면 연기를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느낌 아니까~'
거꾸로, 난 우겨 쌈을 당했어요, '난 느낌 모르니까~'
답답한 상황을 당했거든요, '난 느낌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겨 쌈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느낌 모르니까~.
육체가 거꾸러뜨림을 당했어요, 근데 마음이 그 느낌을 모르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에이, 그게 말이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전쟁의 난리통에 피난을 가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생존해서 든든히 옆에 있기만 하면, 그 전쟁과 피난의 고난을 모르거나 그 고난에 대한 느낌의 강도가 아주 희박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일은 남북한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눈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부모가 눈앞에서 싸우면 어린아이에게는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도 부모가 든든히 옆에 서있어 주기만 하면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전쟁 자체가 고난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에요, 저는 어린아이가 아빠가 죽어서 누워있는 관 위에 올라타고 뛰어다니면서 깔깔대며 놀고 있는 모습도 보았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의 느낌을 몰라요, '난 느낌 모르니까~'
세상일에 실패를 해도 그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도 나와요.
사도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무지 맞았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풍랑이 우겨 쌌습니다.
제자들로서는 풍랑에 우겨 쌈을 당하고, 풍랑에 막혀서 활로를 찾지 못하는 답답함을 겪고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겁니다, 모든 어부의 능력이 다 꺾어져버렸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배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되겠는가?

이런 말도 안돼 보이는 보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보배를 다루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면 여의주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보배가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내 상황에서 주어지는 효과들이 전혀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난 느낌 모르니까'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건데,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라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전쟁 통에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때에, 십자가라는 보배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보내줍니다.
이게 보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겨 쌈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겨 쌈을 헤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이 우겨 쌈을 당하는 몸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인 보배가 우리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겨 쌈을 당해도 싸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죽어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버리니까 답답함을 느끼질 못해요, '느낌 없으니까~'

이 보배의 능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보배의 능력의 2단계에요.
우겨 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활로를 찾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 활로를 찾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십자가의 보배가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버렸으므로, 우리 마음이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배의 능력이 끝난 줄 알았더니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는데, 내가 몸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들 되시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던 공생애 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이 땅에서 사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었더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로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의주의 능력은 상상 속의 능력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속의 보배의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상황에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마음이 흡수하지 않게끔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로 보내버리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이 몸의 상황에서는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소원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오셔서 생을 살아가시는 일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제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바람직합니까?
용을 사탄의 상징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마귀 뺨치는 제2의 마귀가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소원은 세상에 대해서 갖는 한, 그 속에는 죄가 스며들어가지 않는 소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라는 말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마음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있다, 설령 그 내용이 선교라도 마찬가지에요.
선교를 통해서 내 인생을 잘 꾸며보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결국 죄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절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서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갖고 계신 소원이 내 마음에 이식된 것이라야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여의주와 용이 연합돼 있으니 용이 사탄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은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죄의 활성화의 능력이고, 내 죄의 극대화의 능력이고, 내 죄악이 나를 삼키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벌고 싶은 대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게 곧 죄악이 나를 삼켜버린 상태고, 진짜 거꾸러뜨림을 당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되잖아요? 그게 진짜 망함에 의해서 우겨 쌈을 당하는 겁니다.
내 속에 뼛속까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배요 능력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은 소원도 거부도 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이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마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하늘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해결 될 게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꾐에 빠져있는 것이고, 하늘에서만 해결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육체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은 주님께서 육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의주의 능력?
그야말로 개나 줘버리세요,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소원하고 있는 여의주와 그 능력, 웃어버리면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참 능력을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능력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